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5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부품소재총괄과 원동진 과장, 김태우 사무관(02-2110-5613)	

정부 R&D 지원의 온기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

- 정부 R&D 미경험 기업 대상, 『첫걸음 부품·소재기술개발사업』 추진 -

□ 지경부(장관 : 최중경)는 금년 5월부터 **현장 기술력**은 있으나, **정부 R&D 과제를 한 번도 수행하지 못한 기업**들을 대상으로 **『첫걸음 부품·소재기술개발사업』**을 추진하여,

○ 그동안 **R&D 지원**에서 **소외받은 매출 100억원 이하**의 **소규모 기업**에 대한 **R&D 지원을 확대**할 계획임

〈 첫걸음 부품·소재기술개발사업 개요 〉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	·정부 R&D 사업 경험이 없고,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이하의 부품·소재중소기업(소규모기업 우선 지원)
지원금액, 기간	·업체당 년 1~3억원, 2~3년간 지원

□ 금번 계획은 최근 정부 R&D 과제가 **원천·핵심기술 위주**로 진행되어 **대기업 및 대-중소기업간 공동협력과제**로 추진됨에 따라,

○ 대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**소기업들의 단독주관 형태 R&D 참여를 지원**하기 위함

□ **8만여개**의 부품·소재 중소기업중 **지난 10년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업체**는 **10% 미만**인 것으로 추정

○ 전체 부품·소재기업 **84,761**개('08년 기준, 한국신용평가)중 **재무적으로 안정된 6등급**(Less vulnerable) 이상 부품·소재기업은 **26,508개**이나,

- **지난 10년간 정부 R&D 과제**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**6,176개사**(7.3%)에 불과, 최소 **20,000여개의 능력있는 중소기업**들이 **정부 R&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것**으로 분석

〈 00~10년간 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정부 R&D 지원현황(단위 : 개) 〉

구 분	지원과제수	지원 업체수	2회이상 지원 업체수
지경부	2,548	1,588	517
중기청	8,948	5,517	2,186
전 체	1,1496	6,176	2,750

* 자료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주관기관 기준)

□ 지경부는 **기술혁신 능력**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R&D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을 **R&D 정책의 높은 진입장벽과 중소기업의 서류 작성 능력 부족**으로 분석

〈 중소기업의 정부 R&D 참여 제한 요소 〉

① R&D과제 선정평가시 연구소, 석·박사 보유 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, 사업계획서에 특허동향분석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,

– 학사 또는 고졸 연구인력으로 현장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로 R&D를 추진하는 다수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조건임

②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 아이디어는 갖고 있으나, 경험 부족 등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정부 R&D 과제로 만드는데 한계

□ 이에 따라,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정부 R&D 사업에 참여하는데 **근본적인 장벽**이 있다고 판단하여,

○ 『첫걸음 부품·소재기술개발사업』을 올해 **50개 중소기업**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, **향후 점진적으로 확대**할 계획

* '11년 하반기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'20년까지 2,000여개 업체 지원

□ 본 사업의 특징은 정보획득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**복잡한 사업계획서를 단순화**하고, **작성방법을 지원**하는 한편,

○ **R&D 과제 발굴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**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**현장에서 밀착 지원**할 경험과 역량을 갖춘 **중소기업진흥공단**을 지원단*으로 운영하는 것임

* 지원단은 과제기획 컨설팅,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 및 사업화 연계 지원기능 수행

□ 지경부 관계자는 "중소기업들이 **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**하고 있고, **일자리 창출에도 기여**하고 있다"고 보고,

○ 보다 **많은 중소기업들이 노하우를 습득**하고 **수준 높은 R&D에 도전**하여 **자체 역량을 제고토록 지원**한다는 계획임

붙 임

첫걸음 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

2011. 5.

지 식 경 제 부
부품소재총괄과

목 차

Ⅰ. 검토배경 ····· 1
1. 정부 R&D 지원 확대 필요성 ····· 1
2. 부품·소재 중소기업 현황 ····· 2

Ⅱ. 부품·소재기업 R&D 현황분석 ····· 3
1. 국내 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R&D 지원 현황 ····· 3
2. 정부 R&D 미수행 업체 현황 ····· 4

Ⅲ.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의 정부 R&D 활용 애로요인 ····· 6
1. 높은 진입장벽(Entry Barrier) ····· 6
2. 정부 R&D 접근역량 부족 ····· 7

Ⅳ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8
1. 「첫걸음 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」 추진 ····· 8
2. 「첫걸음 부품·소재 R&D 지원단」 구성·운영 ····· 10

Ⅰ 검토배경

1 정부 R&D 지원 확대 필요성

□ **(현행 R&D지원의 한계)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이 정부 R&D지원 혜택**을 받기에는 **많은 어려움**이 존재

○ 현행 R&D 지원 제도는 **R&D 실패 위험을 최소화**하기 위해 각종 **진입장벽***(Entry Barrier)**을 강화**

* 투자유치 및 전문연구소 보유 의무화,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업계획서 등

○ **현장 기술력을 보유**하고 있으나 정부 **R&D에 접근**(Access)**하기 어려운 부품·소재 중소기업**들은 **R&D 사각지대에 방치**되고 있음

- **'R&D 미경험 → 과제 선정 탈락 → 경험 축적기회 상실 → R&D 미경험'**으로 이어지는 **악순환 지속**

○ 반면, **한번 지원받은 기업**은 **노하우를 축적**, 향후에도 **계속 중복 지원되는 문제** 발생

* '00~'10년간 6,176개사가 정부 R&D 지원을 받았고, 그중 2,750개(44.5%)는 중복 지원

□ **(친서민형 R&D 정책의 필요성) 대형화·고도화**되고 있는 **R&D 정책을 보완**하기 위해 **강소기업을 지원**하는 **별도 대책** 필요

○ 최근 선도자(First-Mover)로서 **미래시장 선점, 신시장 개척** 등을 위해 **정부 R&D 과제가 점차 대형화·고도화**되는 추세

* WPM(과제당 1천억원, 총 1조원), 미래산업선도(과제당 3천억원, 총 3조원)

○ 대형 R&D 과제는 **고도 기술, 대규모 투자**를 요구, **대·중견기업 및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**될 가능성

* 주관사업자 : (WPM) 대 8, 중소 2, (미래산업선도 조기성과창출형) 대 5

○ 이에 따라, 작지만 **비용절감, 생산성 향상** 등 혁신적 **R&D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**할 수 있도록 **R&D 제도를 보완**할 필요

2 부품·소재 중소기업 현황

□ **(경쟁력의 원천)** 부품·소재 중소기업들은 **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핵심적 역할 수행**

○ 부품·소재는 **제품 경쟁력의 핵심 원천**으로 **완제품의 품질 향상, 비용절감, 부가가치 향상** 등에 큰 영향

* 토요타는 부품결함으로 인한 리콜 조치로 경제적 손실과 '품질신화' 이미지 손상

□ **(고용 창출)** 소규모 부품·소재기업이 고용의 **28.7%를 차지**하는 등 **일자리 창출**에도 중요한 역할

〈 부품·소재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(단위 : 천명, %) 〉

구 분	대기업·중견기업 (300인 이상 고용)	중소기업 (50~300인 고용)	**소기업 (10~50인 고용)**	계
고용인수	517	403	**371**	1,291
비 중	40.0	31.2	**28.7**	100.0

* 출처 : 광업·제조업통계조사(통계청)

○ 특히, 향후 **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**한 **강소기업으로 성장**하면서 통해 **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**할 가능성

〈 생산·고용 창출형 강소기업 例 : "가젤(Gazelle)형" 기업 〉

◈ 매출 성장율이 3년 연속 평균 20%이상인 성장형 기업으로서, 기술집약적이고 대규모 R&D 투자를 실행하며 고용창출이 높은 특징

* 높은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점프력이 좋고 빨리뛰는 영양류인 '가젤'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

□ **(주력산업의 기반 강화) 부품·소재 중소기업**들은 **주력산업의 기반을 두텁게 하고, 건강하고 활력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근간**을 구성

◈ **부품·소재 중소기업**중 **성공 유전자**(DNA)를 가진 **'숨어있는(Hidden) 강소기업'을 집중 발굴·육성**할 필요

*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은 특정분야에 집약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고품질을 만드는 강소기업으로 성장가능한 후보기업군

Ⅱ 부품·소재기업 R&D 현황 분석

1 국내 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R&D 지원 현황

□ **(지원금액 현황)** ’00～’10년간 부품·소재 분야에 **총 13,057개 과제에 46,606억원의 R&D**를 지원

＊ 지경부, 중기청 전체 R&D 예산 32.4조원 중 14.4%가 부품·소재기업에 지원

○ 지원대상별로는 **중소기업에 38,860억원**(83.4%), **대기업에 7,746억원**(16.6%)의 예산을 지원, **중소기업에 더 많은 예산 지원**

〈 정부 R&D 지원현황 (지원금액 기준, 억원, %) 〉

년도	지경부				지경부 + 중기청			
	전체	기업 지원 현황			전체	기업 지원 현황		
		계	대기업	중소기업		계	대기업	중소기업
’00～‘10	292,281	36,720	7,746	28,974	323,918	46,606	7,746	38,860
		(100.0)	(21.1)	(78.9)		(100.0)	(16.6)	(83.4)

＊ NTIS 자료(교과부, KISTEP)

＊ 지경부(중기청 포함) 전체 예산은 부처 통합전 정통부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며, 기업지원 현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분석한 결과

□ **(지원기업 현황)** 지원기업별로는 **소수 기업들에 정부 R&D가 중복·집중 지원**되는 한계

○ ’00～’10년간 **전체 부품·소재기업**(84,761개) **중 단 한번**이라도 **정부 R&D 지원을 받은 업체는 7.3%**(6,176개사)에 불과

- 이중 **2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업체가 44.5%**(2,750개사) 수준

〈 정부 R&D 지원현황 (지원기업 기준, 개) 〉

구 분	부품소재업체 지원과제수	지원 부품소재 업체수	2회이상 지원 업체수
지경부*	2,548	1,588	517
중기청**	8,948	5,517	2,186
전 체	**1,1496**	**6,176**	**2,750**

◈ 정부 R&D 지원은 **중소기업에 집중 지원**(금액기준)되고 있으나, **중복지원**(업체기준)으로 **많은 기업에 확산되지 않는 문제**

2 정부 R&D 미수행 업체 현황 분석

◈ 정부 R&D실적이 없는 기업들의 **신용현황, 기술개발 가능성** 등을 파악하기 위해 **한신평***, **중진공 융자 D/B****를 활용·분석

＊ ’10년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별 부품·소재기업 현황(84,761개 업체) 활용

＊＊ ’10년 중진공 융자심사를 통과한 부품·소재기업 3,366개를 대상으로 분석

[한신평 통계 분석]

□ **(R&D 가능업체 현황)** 정부 R&D실적은 없으나, **기술성·경영능력**을 바탕으로 **R&D 수행이 가능**한 **부품·소재기업이 다수 존재**

○ 전체 부품·소재기업 **84,761개**(’10년 기준)중 은행권 융자가 가능한 **6등급**(less vulnerable) 이상 **기업은 26,508개**로 **31.3% 수준**

〈 신용등급별 부품·소재기업 현황(단위 : 개, %) 〉

신용등급	1	2	3	4	5	6	7	8	9	10	없음	계
업체수	41	499	1,292	3,557	7,429	13,696	13,232	9,767	3,075	1,209	30,964	84,761
비 중	0.1	0.6	1.5	4.2	8.8	16.2	15.6	11.5	3.6	1.4	36.5	100.0

○ 이에 따라, **대다수 기업**(20,332개, 76.8%)**들이 안정적 재무역량**에도 불구, **정부 R&D 경험이 없는 것**으로 분석

＊ 지난 10년간 6,176개 기업을 지원했으므로 중소기업 부도율(1.4%)까지 감안할 경우, 현재 6등급 이상 부품·소재기업중에도 정부 R&D 지원경험이 없는 업체는 80% 이상으로 추정

[중진공 통계 분석]

□ **(업체 현황)** ’10년 중진공 융자 지원을 받은 3,366개사* 중 **정부 R&D 미경험 업체**가 **3,168개로 거의 대부분****(94.1%) 차지

〈 R&D 수행 부품·소재업체 현황(단위 : 개, %) 〉

구 분	R&D 경험기업	**R&D 미경험 기업**	계
업체수(비중)	198(5.9)	**3,168(94.1)**	3,366(100.0)

＊ 소규모(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업 85.5%), 오랜 업력(업력 5년 이상 기업 60.6%)을 보유한 수도권 소재기업(34.0%)이 높은 비중 차지

＊＊ 전체 부품·소재기업(84,761개)중 정부 R&D 사업(중기청 포함)을 지원받지 못한 업체(78,585개) 비중 92.7%와 유사

□ **(R&D 가능업체 현황) 소규모**이나 **현장 기술력** 등을 바탕으로 **R&D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아직도 다수 존재**

○ 총 **3,168개 업체**(94.1%)가 R&D 지원은 받지 못했으나 **기술력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**되는 **융자적격 등급**(C-) **이상**을 획득

* 중진공 융자는 시장성, 경영능력과 함께 R&D 기반, 기술수준 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·지원(사고율 : 2.64%)

〈 중진공 융자 평가등급 현황 〉

구 분		100억원 미만	100~200억원	200~300억원	300~500억원	500~1,000억원	1,000억원 이상	계
R&D 미수행	A	-	-	-	-	-	-	-
	B	14	13	4	2	4	2	39
	C	2,701	260	81	55	25	7	3,129
소 계		**2,715**	**273**	**85**	**57**	**29**	**9**	**3,168**
R&D 수행		163	16	11	5	3	-	198
계		2,878	289	96	62	32	9	3,366

〈 중진공 융자 평가항목 예 :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〉

① 시장성 : 영업기반(경쟁강도, 시장지위), 거래기반(판매관리능력, 거래처)
② 기술성 : 기술개발 기반(기술개발인력, 연구개발투자), 기술수준(기술개발 실적, 핵심기술의 우위성, 기술의 응용·확장성), 생산기술
③ 경영능력 : 경영자(경영자 능력·신뢰도), 재무전망(매출성장성, 수익성 등)

○ 실제로 **정부 R&D 경험이 없어도**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중 **현장 경험·기술력**을 바탕으로 **성공사례**가 **지속 발굴**

◈ 정부 R&D 실적은 없으나, **기술성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R&D 수행이 가능한 유망한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**

* 한신평 자료 분석결과, '10년 현재 20,000여개 이상 존재 추정
* 중진공 융자평가로 살펴본 결과, '10년 현재 최소 90% 이상 존재

Ⅲ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의 정부 R&D 활용 애로요인

◈ 부품·소재 중소기업들은 **기술개발 아이템 발굴능력 부재,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미흡** 등으로 R&D 참여에 소극적

◈ 또한, **홍보부족, 공급자 중심의 평가체계, 투자유치 의무화** 등 **제도적 요인**도 R&D 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

1 높은 진입장벽(Entry Barrier)

□ **(엄격한 평가기준) 정부 R&D의 성공 가능성**을 높이기 위해 **평가시 전문연구소, 석·박사인력 보유가 중요한 요소**로 작용

○ **대졸 이하 현장 기술인력들을 바탕**으로 R&D를 수행하고 있는 **대다수 중소기업**들은 **정부 R&D 사업에서 배제**

* 대다수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은 학사출신 연구개발 인력이 주류(56.9%)

□ **(복잡한 사업절차) '수요조사 → 과제기획 → 공고'**로 이어지는 **복잡한 사업절차**가 **중소기업의 참여 확산**에 **장애요인**

○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**공고 이후에 R&D 사업을 인지, 과제기획에 참여하지 못하고, 준비기간도 촉박*한 문제**

*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나, 현행 공고기간은 1개월에 불과

□ **(전문적인 서류작성)** 많은 중소기업들이 **특허 동향, 경제성 및 시장성 분석 등 전문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요구에 부담**

* 대다수 기업(85.9%)들이 정부 R&D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요구

□ **(투자유치 의무화) 기술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계**하기 위한 **민간투자 의무화** 제도*도 **R&D 확산을 저해**

* 정부출연금의 50% 이상 투자를 받아야만 지원(부품·소재 단독기술개발사업)

○ 기업규모와 자본이 취약한 **부품·소재 중소기업은 경영권 침해 우려**로 **활발한 사업참여가 어려운 실정**

2 정부 R&D 접근역량 부족

□ **(R&D 과제 기획능력 부재) 미래성장**을 위한 **R&D 아이디어 발굴** 이후, **이론적 뒷받침**을 통해 **정부 R&D 과제**로 만드는데 **한계**

○ 정부 R&D 노하우가 풍부한 **대학·연구소** 등에 **R&D 수행을 의존**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

□ **(R&D 정보 부족)** 정부 R&D 사업에 대한 **중소기업들의 정보 부족**으로 **참여 자체가 제한**

* 인터넷(30.2%) 및 지인(22.6%)을 통한 정보획득이 상당수(설문조사, '10.11)

□ **(사후점검 문제)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역량 부족**으로 **과제 선정후에도 부실*하게 수행**해 나갈 우려

*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은 경험부족으로 과제진도 점검, 사업비 집행에 부담

○ **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부족** 등으로 **성과 도출이 어려움**

○ 기술개발 이후에도 **양산화 및 마케팅 시장진출** 등 **사업화 전략**에 대한 **체계적인 로드맵 구축이 미흡**

* 개발된 기술이 자금, 판로문제 등으로 양산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한계

◈ **부품·소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**를 통해 **높은 진입장벽**(Entry Barrier)**을 완화**할 필요

* 현행 R&D 선정방식은 연구인력, 장비 등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역량을 갖춘 중견·강소기업을 위해 설계

○ 전문적이고 복잡한 **사업계획서 등을 단순화**하고 **투자유치 의무화 요건을 완화**

◈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**실패 가능성을 예방**하기 위한 **철저한 사후점검** 및 **사업화 제고**를 위한 **지원인프라 구축** 필요

Ⅳ 향후 추진계획

〈 기 본 방 향 〉

◈ **현장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발굴·지원**하는 **「첫걸음 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」** 추진

○ **정부 R&D 사업에 최초 참여**를 유도하여 **R&D 노하우를 습득**하고, **보다 높은 수준의 R&D에 도전**하도록 지원

* '11년 100억원 규모 시범사업(50개 업체 지원) 추진후, '12년 이후 예타를 거쳐 년간 200개 업체 지원

◈ **중소기업**이 R&D 과제 참여시 겪는 **애로사항을 해소**하기 위해 **「첫걸음 부품·소재 R&D 지원단」 구성·운영**

1 「첫걸음 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」 추진

가 사업 개요

□ **(지원 대상) 정부 R&D 사업 경험이 없고,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하**의 부품·소재 중소기업(소규모기업 우선 지원)

□ **(예산 및 기간) 업체당 年 1~3억원, 2~3년간 지원**

○ 기존 R&D 사업은 **지원금액**(8~12억원)**이 크고, 기간**(3~4년)**이 길어** 부품·소재 중소기업들이 **소진하는데 어려움**

□ **(사업체계) 과제발굴·지원과 평가주체 二元化**로 **효과성 제고**

○ **사업평가**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에서 전담, **기술력있는 유망한 부품·소재 중소기업 발굴**에 주력

* 과제평가관리비는 RCMS(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)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

○ **과제발굴 및 사후점검·사업화 지원**은 **경험과 역량**을 갖춘 **전문기관이 수행**하여 **사업성공 가능성 제고**

나 주요 내용

☐ **(절차 간소화)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단순화**하고 **작성방법** 지원

○ 사업계획서를 **재무구조, 기술성 등 핵심적 요소**로만 구성, **현행 100페이지 → 30페이지 내외**로 **대폭 간소화**

○ **'1인 컨설턴트'를 지정·운영, 구체적인 사업계획서** 작성 지원

☐ **(R&D평가 내실화) 역량 및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**하기 위해 **'발표평가'와 '현장실사' 병행**

○ **기술성, 경제성 위주의 핵심적 요소**를 **중점 평가**하고, **평가시간**도 현행 **30분→1시간으로 확대**, **'옥석 가리기'**에 주력

○ **경영자 면담, 공장실사** 등을 통해 **회사 역량과 경영방침, 리더쉽, 기술과제 사업화 가능성** 등을 평가

* KEIT, 기술전문가, 수요기업 관계자 5~6명으로 현장평가단 구성

○ **부품·소재 중소기업**도 **유망하고 차별화된 기술력**만 있으면 **R&D 사업에 참여**할 수 있도록 **민간투자 의무화 면제**

☐ **(홍보 강화) 온 - 오프라인 인프라**를 활용한 **종합적인 부품·소재 중소기업 홍보체계 구축**

○ **현지 밀착형 사업설명회*** **개최** 및 **개별 업체 대상 이메일 서비스 제공**을 통한 **R&D 사업 정보 확산 도모**

*「부품·소재 중소기업 R&D 지원단」인프라를 활용한 소규모 설명회 개최

○ 부품·소재 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한 연간 추진계획을 담은 **'부품·소재 기술개발사업 계획서' 발간**

*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포함하여 기업 편의를 증진하고 활용도 제고

○ **공고기간도 최대한 확대**, 중소기업들에게 **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**까지 **최대한 준비기간 제공**

* 공고 후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약 2~3개월 소요

2 「첫걸음 부품·소재 R&D 지원단」 구성·운영

◈ 중소기업의 **R&D 과제 발굴 등을 지원**하고,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**사후 점검 및 사업화 지원 강화**

*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('11.4)

[과제발굴 지원]

☐ **(수요기업 R&D 설명회)** 미래 유망 R&D과제 도출을 위해 **수요 대기업-부품·소재 중소기업**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

○ 수요기업의 향후 **연구개발 방향, 시장 동향** 등 최근 정보 제공을 통해 **기술개발과제 선정 지원**

☐ **(비즈니스 포럼)** 부품·소재관련 **신제품 아이디어 도출, 과제발굴**을 위한 **'부품·소재 비즈니스 포럼'** 구성·운영

○ 기업-연구기관간 기술정보 논의를 통해 **자유로운 아이디어 도출**과 **R&D 과제발굴**이 이루어지는 **'정보교류의 場'** 마련

* 권역별 1개 비즈니스 포럼(30~50명)을 구성하여 총 5개 포럼 구성·운영

[사후점검 강화]

☐ **(사업성과 점검) 과제수행 점검** 및 **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**을 위한 **'부품·소재 도우미 제도' 운영**

○ **과제진도, 사업비 집행상황을 확인**하고, **R&D 진행상황은 평가기관에 수시로 보고**

*「1사-1도우미 제도」운영을 통해 사업진행상황을 수시 점검·평가

○ 개발기술에 대한 **특허, 법률 분쟁 해결**을 위해 기술·제품의 신용신안, 특허 신청 등 **자문서비스 제공**

☐ **(전문연구인력 및 장비 지원)** 수행중인 과제 개발에 필요한 개발인력 및 보유장비를 지원함으로써 **연구개발 성공률 제고**

[사업화 지원 연계]

□ **(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) R&D 완료과제의 사업화 가능성**을 제고하기 위해 **업계-지원단 전문가간 매칭 서비스 지원**

○ 기술개발업체와의 **상시 접촉**을 통해 **판로확보, 자금지원** 등 **사업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 지원**

* 과제수행 성공업체에 경영·기술 전문성을 갖춘 1명의 담당자 지정

□ **(사업화 지원 강화)** 사업 추진 全과정에 걸쳐 **컨설팅, 해외시장 개척 및 신뢰성 향상사업** 등 지원 확대

○ **개발 단계**에서 해외 수요기업과 기술제휴, 지분투자 등 **글로벌 파트너쉽*** 사업을 **연계 지원**하여 R&D 성과를 **수출로 연결**

* 글로벌 수요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1:1 파트너링 상담 지원

○ 개발제품의 **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해외시장 진입을 촉진**하기 위해 **신뢰성 향상사업을 연계 지원**

□ **(정책자금 융자 지원) 기술개발 성공기업**에 대해 평가를 거쳐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**시설·운전자금 등 지원 가능**

〈 주요 정책자금 융자지원 例 **〉**

구 분	대상 및 범위	대출한도
개발기술 사업화자금	·부품·소재 등 전략산업 영위기업이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	연간 20억원 (운전자금 5억원)
긴급경영 안정자금	·원·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금융 지원	연간 5억원(3년간 10억원 이내)

◈ **부품·소재 중소기업**들은 **부품·소재산업의 허리**를 이루는 **근간**이자 **동태적이고 활력있는 산업구조 형성**의 밑바탕

◈ 앞으로 보다 많은 부품·소재기업이 **R&D사업에 참여, 혁신역량을 제고하고,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**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